

#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 임실군 공무원, 고령농가 등 원예·밭작물 재배 일손부족 농가 우선지원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부족한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위해 임실군청 직원들이 농촌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지난 14일 임실읍사무소, 기획예산실, 재무과 직원 30여명은 일손이 부족한 임실읍 두 농가를 도왔다.

임실을 직원은 임실을 감성리 황모 씨(59) 콩 농가를 찾아 1940㎡ 콩심기 작업을 도왔으며, 기획예산실, 재무과 직원은 감성리 이모 씨(60) 농가를 찾아 고추밭 1940㎡의 고추 순따기 등을 실시했다.

이날 대상농가인 황모 씨는 "고령화 및 이농현상으로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행정에서 도움을 손길을 주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군은 봄철 영농철을 맞아 부족한 일손돕기 중점 추진기간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하고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돕고 있다.

또한 고령농가 및 부녀농가, 기상재해 지역과 과수·채소 등 원예작물과 밭작물을 재배하는 일손부족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지난 달 말 덕치면, 시설운영사업소 직원 20여명은 덕치면 가곡마을 고추농가를 찾아 고추 순따기, 지



지난 14일 임실읍사무소, 기획예산실, 재무과 직원 30여명은 일손이 부족한 임실을 두 농가를 도왔다.

주목 세우기 작업을 도왔다.

지난 5일 성수면, 농촌활력과, 기술보급과 직원20여명은 성수면 봉강리 이모 씨 고추농가를 찾아 이른 아침부터 고추지주대를 세우고, 고추줄 매는 작업을 도우며 농가의 걱정을 덜어주었다.

지난 12일에는 신평면, 문화관광치즈과 직원 20여명은 신평면 덕전마을에서 손가락 부상을 입어 농사일이 힘들어했던 정모씨 고추 농가의 시름을 덜게 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농촌의 인구 감

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가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아픔을 이해하고 어려움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실군 및 읍·면사무소에서는 "농촌일손 돕기 앞선 창구"를 설치하고 대상농가, 지원시기, 작업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일손돕기 대상자와 지원 희망자 간 인력을 알선하고 있어 농촌의 인력부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이(통)장 시정현장 공감특특 교육

남원시는 지난 14일 관내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시정현장 공감특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교육으로, 당초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 주요현안 사업이나 타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주요 사업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시되었으나, 올해는 그 대상을 관내 이·통장으로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날 노안산업단지 화장품컨버전센터 등

주요 현안사업장을 방문한 30여명의 이(통)장들은 그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관심이 많지 않았던 시 주요 현안 사업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남원의 미래 청사진이 되어줄 주요현장을 가까이서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마을을 대표하는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정현안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맞춤형복지팀장 간담회

남원시는 지난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2차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장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것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실적 논의, 읍면동 사회복지 특화사업 공유, 우수사례 발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남원시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장 소

통간담회를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오는 10월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초기상담, 모니터링 상담, 통합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등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상호 의견을 나누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지난 13일 2019년 부서별 역점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 '시책 발굴 시민이 OK할 때 까지'

### 남원시, 부서별 역점사업 발굴 토론회

남원시는 지난 13일 2019년 부서별 역점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시간부 및 사업추진 담당이 참여해 시민을 위한 시책은 반드시 추진한다는 책임 하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부서별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주요 시책사업은 시민이 제안한 사업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론화 구체화해 시민모두가 공감하는 정책

구현을 실현토록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 마을기록을 시민과 함께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문화 예술적 접근이 어려운 소외마을에 시립국악단의 정자나무 국악콘서트, 의료급여대상자 이가탄 단 지원사업, 경로당 간식비 지원, 도심벽면을 푸르게, 수직정원 조성사업 등 시민을 위한 시점으로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 매실, 서울 도심 소비자들 인기몰이

### 창동 하나로클럽서 판촉행사 가저

순창 대표 농산물인 매실이 서울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았다.

순창군이 지난 14일 서울 창동 하나로클럽에서 순창군이 주최하고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주관으로 매실 판촉행사를 가졌다.

이날 판촉행사에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 장경민 순창군지부장, 유광희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양준섭 통계농협장 등 군 공무원 및 농협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했다.

황 군수는 판매현장을 찾아 직접 소비자들은 만난 건 지난 4월 순창 참두릅 판촉행사에 이어 올해만 두 번

째로,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판촉행사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며, 지난 14일 특별 이벤트로 순창 밤(옥광, 500g)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황 군수는 도시 소비자들을 직접 일일이 응대하며 순창 매실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확대에 열을 올렸다. 특별 이벤트가 진행된 매실 판매창구에는 순창 매실을 사기 위해 모인 소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순창 매실은 과거 매실액이 소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효능이 언론과

매스컴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순창을 대표하는 효자 농산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히 주산지로 알려진 순창 동계면은 낮과 밤의 온도차로 매실 자체가 굵고 단단해, 타 지역 매실에 비해 속이 딱 차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점차 전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매실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매실 소비율이 매년 하락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자 순창군도 상품성 강화와 유통채널 확대를 농가소득 보전에 힘을 쏟고 있다.

또 20년이상 노령목에 대한 폐원 작업비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서는데 등 생산량 조절에도 노력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